

# 안병훈 '제5의 메이저' 플레이어스 우승 도전

### 14일 개막...김시우·임성재·김주형 등 한국선수 6명 출격 세계 1위 세플러 2년 연속 우승 도전...톱 랭커 대거 출전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제5의 메이저'인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이 14일(한국시간) 미국 플로리다주 폰테베드라비치의 TPC 소그래스(파72·7275야드)에서 막을 올린다.

이 대회는 총상금 규모가 2500만 달러로 올해 열리는 PGA 투어 대회 가운데 가장 크다.

지난해에도 총상금 2500만 달러를 내걸었던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은 4대 메이저 대회보다도 상금 규모가 더 컸다.

지난해 4대 메이저 대회 가운데 US오픈 총상금이 2000만 달러였고, 마스터스와 PGA 챔피언십, 디오픈은 2000만 달러가 안 됐다.

올해로 50회째를 맞는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은 대회 2연패를 달성한 선수가 아직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잭 니클라우스(미국)가 세 차례 우승했지만 1974년과 1976년, 1978년에 정상에 올랐고 프레드 커플스(미국), 스티브 엘킹턴(호주), 할 서튼, 데이비스 러브 3세, 타이거 우즈(이상 미국)가 두 차례 우승한 경력이 있다.

그러나 올해는 그 어느 때보다 2연패 가능성이 큰 대회로 예상된다.

지난해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우승자가 바로 현재 세계 랭킹 1위 스코티 셰플러(미국)이기 때문이다. 2023년 대회에서 2위에 무려 5타 앞선 우승을 차지한 셰플러는 11일 끝난 PGA 투어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에서 정상에 올라 상승세를 타고 있다. 셰플러가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을 제패하면 이 대회 2년 연속 우승, 최근 2주 연속 우승을 동시에 달성한다.

세계 랭킹 1위가 이 대회에 '디펜딩 챔피언' 자격으로 나오는 것은 2014년 우즈 이후 올해 셰플러가 10년 만이다.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도 2020년에 세계 1위 자리에서 타이틀 방어에 나섰다. 당시 대회는 코로나19 때문에 첫날 경기만 치르고 취소됐다.

디펜딩 챔피언의 역대 최고 성적은 1977년과 1990년, 2001년 세 차례 5위다.

또 지난해 우승자가 10위 안에 든 최근 사례가 2005년일 정도로 유독 이 대회에서는 '디펜딩 챔피언'이 힘을 쓰지 못했다.

하지만 올해는 PGA 투어 인터넷 홈페이지가 예상한 '파워 랭킹'에서 셰플러가 1위에 올라 가장 강력한 우승 후보로 주목됐다.

'제5의 메이저'로 불리는 대회답게 세계 랭킹 1~10위 선수 가운데 LIV 골프 소속인 3위 온 램(스페인)을 제외한 전원이 출전한다.

PGA 투어 전망으로는 최근 2년간 이 대회에서 공동 13위(2022년), 공동 6위(2023년)로 선전한 맥스 호마(미국)가 셰플러에 이어 우승 후보 2위로 잡혔고, 2월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 챔피언 마샤야 마히데키(일본)가 3위로 예상됐다.

한국 선수로는 안병훈이 PGA 투어 파워랭킹 11위에 이름을 올렸다.

PGA 투어의 파워랭킹 상위 15위 가운데 PGA 투어 우승이 없는 선수는 안병훈이 유일하다. 안병훈은 올해 7개 대회에 나와 톱10 안에 세 차례나 이름을 올리면서 좋은 흐름을 이어가고 있다.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은 한국 선수들과도 인연이 좋은 편이다.

최경주가 2011년 우승했고, 김시우도 2017년에 우승컵을 품어 안았다.

PGA 투어가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50회를 맞아 선정한 역대 50대 명장면에서 김시우의 2017년 우승이 36위, 최경주의 2011년 우승은 37위에 각각 올랐다.

김시우는 이 대회 역대 최연소 우승 기록(21세)을 세웠고, 최경주는 이 대회 최초의 아시아 국적 챔피언이 됐다.

올해 한국 선수는 안병훈, 김시우 외에 임성재, 김성현, 김주형, 이경훈이 출전한다. /연합뉴스



지난 7일 미국 플로리다주 올랜도에서 열린 아널드 파머 인비테이셔널 골프대회 1라운드 도중 11번홀에서 한국의 안병훈 선수가 티샷을 지켜보고 있다.

## 기계체조 류성현, 파리 올림픽 출전권 획득

### FIG 월드컵 1~3차 마루운동 1위

한국 남자 기계체조의 기대주 류성현(한국체대)이 2024 파리 올림픽 출전권 손에 넣었다.

파리 올림픽 출전권이 걸린 국제체조연맹(FIG) 종목별 월드컵 시리즈에서 마루운동 1위를 달린 류성현은 12일 현재 최소 2위를 확보해 4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리는 마지막 월드컵 대회 성적과 관계 없이 파리행을 확정했다.

FIG는 개인 자격으로 파리 올림픽에 도전하는 선수들을 대상으로 4차례 월드컵 대회 중 성적이 좋은 3개 대회 기록을 합산해 이미 올림픽 출전권을 얻은 선수들을 제외한 남녀 10개 종목 1, 2위에 대해 올림픽 출전권을 배분한다.

마루운동으로 파리행에 도전한 류성현은 2월 이집트 카이로에서 열린 1차 월드컵에서 우승했고 독일 코트부스 2차 대회에서는 3위에 올랐다. 3차 아제르바이잔 바쿠 대회에서는 5위로 주춧했지만, 1~3차 대회 합산 랭킹 포인트 66점으로 이 종목 1위를 달렸다.

FIG는 1~3차 대회 성적을 기준으로 이미 파리 올림픽 출전 티켓을 따낸 선수들을 빼고 출전권도 전자만의 랭킹을 따로 매겼다.

이 랭킹을 보면, 류성현의 순위는 2차 대회 3위에서 1위로, 3차 대회 5위에서 3위로 상승한다. 2차 대회 1, 2위와 3차 대회 상위 입상자가 모두 파리 올림픽 출전을 확정된 선수들이었던 덕분이다.



지난 2월 17일 카이로에서 열린 2024 국제체조연맹(FIG) 체조 월드컵 남자 마루 경기 결승전이 끝난 후 금메달을 딴 한국 류성현(가운데), 은메달을 딴 쿠바 디올리지 에스코바(왼쪽), 동메달을 딴 불가리아의 에디 페네프가 시상대에서 축하하고 있다.

결국 류성현은 올림픽 도전자 랭킹 포인트로는 80점을 쌓아 마루운동 최소 2위를 확보, 파리 올림픽 출전권을 손에 쥐었다.

이로써 2020 도쿄 올림픽 마루운동에서 4위에 오른 류성현은 2회 연속 올림픽 무대를 밟는다.

파리 올림픽 단체전 출전에 실패한 한국 남자 체조 선수들은 개인 자격으로 올림픽 티켓에 도전했다. 이준호(전안시청)가 6개 종목을 모두 뛰는

개인종합 출전권을 먼저 확보했고, 류성현이 마루운동에서 티켓을 추가했다.

FIG가 각 나라의 균등한 올림픽 출전을 보장하고자 국가올림픽위원회(NOC)에 할당하는 1장도 확보해 우리나라 남자 체조 선수 3명이 파리 올림픽 무대에 선다.

대한체조협회는 NOC 몫의 주인공을 5월 선발전에서 결정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 싱가포르 이어 태국으로...KLPGA 블루캐니언 15일 개막

싱가포르에서 2024시즌을 시작한 한국여자프로골프(KLPGA) 투어가 동남아시아 지역에서 일정을 이어간다.

이번 주 KLPGA 투어에선 15일부터 사흘간 태국 푸켓의 블루캐니언 컨트리클럽(파72·6511야드)에서 시즌 두 번째 대회 블루캐니언 레이디스 챔피언십(총상금 65만달러·약 8억5000만원)이 열린다.

7~10일 싱가포르에서 열린 하나금융그룹 싱가포르 여자오픈으로 막을 올린 2024시즌 KLPGA 투어는 이번 대회까지 해외 일정을 소화하며, 4월 4일 제주 테디벨리 골프앤리조트에서 첫 국내 대회인 두산건설 워브 챔피언십이 개최된다.

2007시즌 이후 17년 만에 3월에 개최된 시즌 개막전에선 정규 투어 4년 차 김재희가 자신의 91번째 출전 대회에 첫 우승을 달성한 바 있다.

김재희는 이번 대회에도 출전해 2연승에 도전한다.

블루캐니언 챔피언십은 신설 대회로, 김재희를 필두로 총 72명이 출전해 초대 챔피언을 향한 경쟁을 펼친다.

개막전에서 김재희에게 한 타 뒤져 준우승한 장타자 방신실, 상위권 성적을 거둔 박현경, 박민지, 황유민 등의 활약이 기대를 모은다. /연합뉴스



노바크 조코비치가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디언 웰스에서 열린 자프로테니스(ATP) 투어 BNP 파리바오픈에서 루카 나르디와 경기를 하고 있다.

## '충격' 조코비치, 파리바 오픈 3회전 탈락

노바크 조코비치(1위·세르비아)가 남자프로테니스(ATP) 투어 BNP 파리바오픈(총상금 949만5555달러) 단식 3회전에서 탈락했다.

조코비치는 12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인디언 웰스에서 열린 대회 6일째 단식 3회전에서 루카 나르디(123위·이탈리아)에게 1-2(4-6 6-3 3-6)로 졌다.

이 대회에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3연패를 달성하는 등 통산 5차례 단식 우승을 차지한 조코비치는 8년 만에 정상 탈환 꿈이 물거품이 됐다. 조코비치는 2019년 3회전 탈락 이후 5년 만에 이 대회에 다시 나왔다.

2020년에는 BNP 파리바오픈이 코로나19 때문에 열리지 않았고, 이후 조코비치는 코로나19 백신 미접종 등의 이유로 이 대회에 출전하지 못했다.

이날 조코비치를 꺾은 나르디는 2003년생 신예

로 지난달 106위가 자신의 최고 랭킹인 선수다. 이번 대회 예선 결승에서 저 원래 본선에 오르지 못할 상황이었으나, 본선 선수의 기권으로 자리가 생겨 대신 출전한 '러키 루저'다.

특히 30년 시드인 토마스 마르틴 에체베리(30위·아르헨티나)가 기권하면서 해당 대진표 자리에 들어가 본선 1회전을 부전승으로 통과하는 행운까지 겹쳤다.

조코비치는 그동안 메이저 대회와 이번 BNP 파리바오픈과 같은 ATP1000시리즈 대회에서 세계 랭킹 123위 이하 선수에게 패한 적이 없었다.

4대 메이저와 1년에 9차례 열리는 ATP 1000 시리즈에서 조코비치가 패한 최저 랭킹 선수 중 최고 기록은 2008년 마이애미오픈 케빈 앤더슨(남아프리카공화국)으로 당시 세계 122위였다.

나르디는 16강에서 토미 폴(17위·미국)을 상대한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파묘
- 2관 둔: 파트2, 윙카
- 3관 마담 웹
- 4관 밤 말라: 원 러브, 윙카
- 5관 파묘, 밤 말라: 원 러브
- 6관 파묘, [위드키즈]브래드 피트: 셉템 인 베이커리타운
- 9관 랜드 오브 배드, 패스트 라이브즈, [위드키즈]용감한 돌고래 블루와 바닷속 친구들
- 7관 싸이퍼블 메이 디셈버, 가여운 것들, 원 앤 온리
- 8관 싸이퍼블 파묘

**광주예술의전당 문의 062)613-8233**

2024년 3월

매주 토-일 17:00

광주공연마루

**광주상설연극단**

2024년 광주상설공연(3월)

일시 : 2024-03-02(토) ~ 2024-03-31(일)

매주 토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 8372

**GAC 공모전시 윤우재 개인전 <이상한 풍경>**

일시 : 2024-02-23(금) ~ 2024-03-24(일)

공연 있는날 10:30 ~ 19:30

공연 없는날 10:00 ~ 18:00

장소 : 광주예술의전당 갤러리

문의 : 062-613-8357

즐거움

**문화산책**